

김연경, 세계 최고 배구여제 선정

FIVB 제휴 매체 발리볼월드닷컴 선정
“지난해 남녀 최고 12명 중 女선수 1위”

김연경(34)이 세계 최고의 여자배구선수로 선정됐다.

국제배구연맹(FIVB) 제휴 매체인 발리볼월드닷컴은 16일(한국시간) “김연경이 지난해 최고의 여자배구선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2020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걸출한 기량을 뽐낸 전 세계 남녀선수 12명의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김연경은 당당히 여자선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발리볼월드닷컴은 “2021년은 김연경에게 획기적인 해였다”며 “2005년 한국국가대표로 데뷔한 김연경은 도쿄대회를 통해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을 이끌었다. 그리고 2012년 런던대회에 이어 2번째로 올림픽 4강에 올려놓은 17년 만에 대표팀에서 은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올림픽 경기에서 4차례 30점 이상을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선수다. 대표팀에서 김연경은 한국 최고의 배구선수라는 위상을 얻었다”며 “올림픽 개최식에선 기수로서 한국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이 V리그 흥국생명 소속이던 2020~2021시즌 팀을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으로 이끈 사실과 지난해 VNL에서 196점을 올린 기록도 함께 소개했다. 도쿄올림픽 직후 대표팀 은퇴, 중국 상하이에서 활약상, 그리고 배구선수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선 사실 등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연경은 실력은 물론 인기 면에서도 세계 최고임이 부각됐다.

이 매체는 이탈리아 출신 지오반니 귀데티 감독의 김연경에 대한 평가도 공개했다. 도쿄올림픽에서 터키여자대표팀을 이끈 귀데티 감독은 “김연경은 러시아 선수의 몸과 미국 선수의 힘, 일본 선수의 기술과 브라질 선수의 민첩성을 모두 갖춘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시즌을 중국프로리그 상하이에서 보낸 뒤 귀국해 향후 거취를 고민 중인 김연경은 17일 소속사 라이언엡을 통해 “폭풍 같은 한 해를 보냈다”며 “발리볼월드닷컴 2021년 여자배구 베스트 플레이어 1위로 선정해주셔서 정말 영광이다. 사계절 내내 뜨겁게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김연경

‘쇼윈도’ 파죽지세…개연성 있는 막장의 힘

송윤아·전소민 공조 방송 8.4%
채널A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록
오늘 최총회 10%대 돌파 가능성
웨이브선 첫 주보다 이용자 66% ↑
이성재 “현실적이라 더 흥미롭다”

채널A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쇼윈도)이 파죽지세다. 18일 중영을 앞두고 최근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시청률을 갈아 치우며 등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시청률 기록뿐이 아니다. 송윤아와 이성재·전소민 등 주역들이 저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워 재평가 받는 기회를 맞았다. 치정과 재벌가의 암투를 그린 ‘막장 코드’의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담았다는 호평도 끊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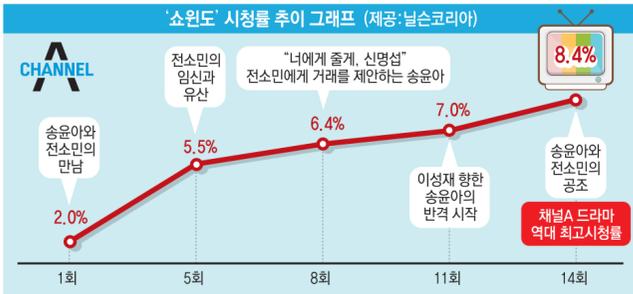
●시청률과 VOD 이용률 동시 증가

드라마는 최근 라켄그룹 상속자 송윤아와 남편 이성재가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다. 갈등의 불씨는 이성재와 미술 강사 전소민의 불륜이다. 전소민은 사랑에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이성재가 야망을 위해 변신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최총회에는 송윤아와 전소민이 공조해 이성재에게 반격하는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세 사람의 관계 변화를 빠르게 그려낸 덕분에 시청률도 급격히 뛰었다. 불륜과 잇단 배신을 폭풍처럼 휘몰아치면서 시청자들의 ‘흔’을 쏙 빼놓았다. 덕분에 지난해 11월29일 2%(닐슨코리아)로 시작한 시청률은 송윤아와 전소민이 공조를



18일 중영하는 채널A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의 인기 원동력으로 배우 송윤아와 이성재(왼쪽부터)의 열연이 꼽히고 있다. 극중 부부 등장하는 이들은 패션회사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긴장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결집한 11일 8.4%까지 치솟았다. 첫 방송보다 4배 이상 시청률이 상승한 셈이다. 이날 기록은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전 드라마 최고시청률은 2020년 10월 중영한 ‘거짓말의 거짓말’이 기록한 8.2%였다. 일각에서는 최총회에서 10%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인기가 입증된다. 웨이브에 따르면 방송

첫 주 이후 콘텐츠 이용자와 시청시간이 각각 66%, 89% 증가했다. 플랫폼 자체 드라마 인기 차트 4위에도 올랐다.

●“개연성 있는 ‘막장’ 새롭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인기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주인공 송윤아뿐 아니라 악역 이성재, 내연녀 캐릭터를 소화한 전소민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성재는 불륜 앞에서 당당하고, 나중에는 전소민까지 해지려는 신명섭을 연기해 시청자 사이에서 “가장 강렬한 캐릭터”로 손꼽히고 있다. 전소민은 평소의 발달한 이미지를 잠시 접고 이성재와 베드신을 소화하는 과격을 감행했다. 점점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초반에 나온 ‘날쌔다’는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다. 최근 실시간 댓글창에는 “전소민이 돋보인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극중 다양한 캐릭터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연출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가 많았다. 드라마를 총괄하는 박종은 책임프로듀서(CP)는 17일 “막장 코드”에서 자칫 잃기 쉬운 개연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면서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펼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송윤아와 이성재도 “막장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라 흥미로웠다”고 입을 모았다.

최총회의 시청 포인트는 ‘여왕의 집’을 깨부수고 나오는 송윤아의 변화다. 박 CP는 “송윤아는 그간 여왕처럼 살았으나 자신만의 쇼윈도에 갇혀 지냈다”면서 “심리적 결핍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그가 과감하게 이를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스파이더맨’ 700만 눈앞…5주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스파이더맨)이 여전히 강세다. 개봉 5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면서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한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지난 주말인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17만 1000여 명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6일

기준 689만 8000여 명으로, 곧 7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15일 개봉 이후 꾸준히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앞서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초로 600만 관객을 동원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영

화 ‘모가디슈’(362만)보다 2배에 가까운 관객이 영화를 봤다. 개봉 5주를 넘긴 최근까지 흥행 저력을 과시하면서 최종 스코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우 박소담이 주연한 액션 영화 ‘특송’은 같은 기간 16만 명이 관람하면서 2위에 올랐다. ‘특송’은 12일 개봉 직후 사흘간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으나 주말 사

이 ‘스파이더맨’에 다시 정상을 내줬다. 누적 관객 수는 23만3000여명이다. 영화는 특송 전문 운전자 박소담이 예상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는 내용을 담았다.

5일 개봉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쌍2계타’와 조진웅·최우식 주연의 ‘경관의 피’가 뒤를 이었다. 각각 13만4000여명과 9만여 명을 모았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리들리 스콧 감독의 ‘하우스 오브 구찌’도 5, 6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침술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 지병이 있어도 | 수술 병력이 있어도 |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텝가마솥 1개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수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한지급금을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준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기금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령층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